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보 도 자 료		부산테크노파크 BUSAN TECHNO PARK
배 포 일 시	2023. 09. 19.(화)	보 도 시 기	배포즉시
담 당 자	라이프케어기술단 라이프스타일산업지원센터 이채윤 센터장(051-720-8930)		

부산 미래특화분야 중심의 협업플랫폼 구축 위해 지·산·학·연 힘 모은다

- 「블록체인×커피 스마트물류 사업단」 발족식 개최
- 「R&D 혁신밸리 협의체」를 통한 미래특화산업 발전전략 수립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는 19일 아스티호텔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 협업플랫폼 구축의 착수를 알리는 '블록체인×커피 스마트물류 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사업에 공모해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지역 미래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자생적 R&D 기획·추진 역량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2개 대학, 10개 기업, 부산테크노파크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기간 33개월(2023.04.~2025.12.)에 총 사업비 118억 원(국비 82.5억, 시비27.5억, 민간 8억)을 투입한다. 커피 물류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생두 이력관리와 인공지능(AI)을 활용, 생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로스팅 가이드를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진행한다.

'블록체인×커피 스마트물류 사업단 발족식'에서는 부산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비전을 공유하고 정부-지자체 및 지역 대학·연구소·기업 등 혁신주체 간 역량 결집을 다짐했다.

부대 행사로는 블록체인, 물류 및 커피산업 전문가 협의체인 「R&D 혁

신밸리 협의체」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가 진행됐다. 주요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각 산업 분야의 기술 동향 및 융합 방안 등을 공유하고 협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생적 R&D 기획 및 미래특화산업 발전전략 수립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2019년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2년 만에 유치한 신규 실증사업으로 부산의 장점인 물류, 커피산업과 연계해 차별화, 실효성을 확보한 만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며, “이번 발족식을 통해 지·산·학·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산 미래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관련사진>

「블록체인×커피 스마트물류 사업단」 발족식	